

## 우리 대학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8개 메달 쾌거

우리 대학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학 스포츠의 저력을 입증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대회에서 ▲레슬링 ▲육상(필드) ▲배드민턴 ▲태권도 등 4개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레슬링에서는 유송현(3학년) 선수가 남자대학부 자유형 65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육상(필드) 종목에서는 고은정(1학년) 선수가 여자일반부 높이뛰기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에서는 ▲이아영(3학년) ▲이은희(3학년) 선수가 여자대학부 개인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을, ▲김서현(1학년) ▲문하은(1학년) ▲배주영(4학년) ▲오시연(2학년) ▲이아영(3학년) ▲

이은희(3학년) ▲최은서(3학년) 선수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남자대학부 ▲김해규(3학년) 선수가 -58kg급 금메달 ▲최재민(2학년) 선수가 -68kg급 동메달 ▲이요셉(4학년) 선수가 -87kg급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으며, 여자대학부 김민경(4학년) 선수가 -57kg급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대학 선수단은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체력·기술·심리 훈련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적인 시즌 운영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계행 체육실장은 "선수들의 열정과 땀으로 이룬 값진 성과"라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모범적인 스포츠 인재를 육성해 지역

과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 환경을 구축해 대학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 우리 대학 치과병원, 개원 47주년 기념식 개최

우리 대학 치과병원(병원장 임성훈)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경 치과대학 1층 대강당에서 '개원 4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78년 개원 이래 지역사회 구강보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치과병원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 ▲김진호 조선대학교 병원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치과병원의 연혁 보고 ▲김이수 이사장과 김춘성 총장의 축사 ▲임성훈 병원장의 기념사 ▲장기근속자·모범상·진료 우수상·친절교직원상·특별공로상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훈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



▲우리 대학 치과병원 개원 47주년 기념식 단체사진

를 쌓는 힘이 된다"며, "진료의 질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병원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우리 대학 치과병원은 1978년 10월 26일, 지방 최초의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으로 8개 진료과와 병동 5실, 10개 병상으로 개원했다. 2000년 현재의 위치로 단독 건물을 지어 이전 개원했으며, 2005년에는 치과대학병원 최초로 의

료영상시스템(Full-PACS), 전자 의무기록(EMR), 치과용 콘빔 CT를 도입해 디지털 치과진료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예방치과를 재개설해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과 예방치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박지인 기자  
parkjiin313@naver.com

## AI와 접목한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출범



▲우리 대학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현판식 모습

지난 9월 30일 우리 대학은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김춘성 총장 ▲김명규 국립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6년간 추진되는 인문한국3.0(이하 HK3.0)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언어 발달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현재 일상생활 속 장시간 녹음 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와 노년층의 ▲언어 환경 ▲인지 발달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첨단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는 국립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학 연구소 분원인 '조선베이비랩@ACC'를 운영하며 영유아 언어 발달과 관련된 리빙랩 연구를 대중에게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

가의 여러 가정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ManyBabies-AtHome'를 주관하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에도 힘쓰고 있으며, 스탠퍼드대학교 언어·인지 연구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 'BabyView Korea'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는 HK3.0 사업 출범 이후 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과 공동 워크숍을 열었으며, 지난 9월에는 '언어, 인지, 그리고 사회'를 주제로 국제학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언어·인지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첨단 인문학 연구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국민 수습기자  
jkmjkm0106@naver.com

## 'Future Mobility Lab', 자율주행 레이싱카 첫 데모

우리 대학 'Future Mobility Lab'(지도교수 성우석)이 제작한 자율주행 레이싱카가 실제 트랙 완주에 성공하며 자율주행 종목의 정식 채택 가능성을 보였다.

Future Mobility Lab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E 모빌리티 연구센터의 '2025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 Formula 부문'에서 자율주행 레이싱 데모를 선보였다.

이번 데모는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황성호 성균관대 교수)가 주최한 대회 현장에서 진행됐

다.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부문이 공식 종목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우리 대학의 Future Mobility Lab의 시범 주행은 관계자들과 참가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학생 제작 자율주행차가 실제 무대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높인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데모는 1회차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트랙 주행을 이뤄졌으며, 2회차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체험 형식으로 실제 승차

주행이 진행됐다. 레이싱카의 주행 속도는 숙련된 드라이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동일한 내구 트랙을 완주하며 ▲인지 ▲경로 계획 ▲제어 등 자율주행 핵심 기능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했다.

성우석 지도교수는 "이번 데모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말했다.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ls1022@naver.com

# 2025 온-에어 직무박람회 개최

우리 대학이 지난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2025 온-에어 직무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RISE사업단 정주인재양성센터(센터장 황석승)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한다.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취업 특강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청년고용정책 골든벨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이후 정착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전용 홈페이지(chosun.insightjob.co.kr)를 통해 현직자와 취업 전문가의 직무특강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강의는 종료 후 다음달 7일까지 VOD로 재시청할 수 있어, 일정이 맞지 않는 학생들도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대부분이 점심시간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운영돼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참여도에 따라 경품도 제공된다.

올해 박람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주에어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과 ▲KT ▲기아 ▲한국알프스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한림제약 ▲이랜드 등 대기업, 그리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지역 강소기업까지 총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재홍 대학일자리플러스센

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질적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에도 온라인 직무박람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일정은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X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2025 조선대학교

LIVE

On-Air

직무박람회

10월 27일(월) - 11월 4일(화)

chosun.insightjob.co.kr

사전접수 오픈 10월 23일(금) 8시

서비스제공기간 12월 8일(수) 8시

참여 혜택 (무비밀 스터디용) / 추천경품

직무설명회 프로그램

10월 27일(월) 18:00 ~ 20:00

10월 28일(화) 18:00 ~ 20:00

10월 29일(수) 18:00 ~ 20:00

10월 30일(목) 18:00 ~ 20:00

10월 31일(금) 18:00 ~ 20:00

11월 1일(토) 18:00 ~ 20:00

11월 2일(일) 18:00 ~ 20:00

11월 3일(월) 18:00 ~ 20:00

11월 4일(화) 18:00 ~ 20:00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RISE 사업단 정주인재양성센터

문의: 062-230-7575

## 광주 출신 스웨덴 해외입양인과 지역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지난달 15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광주 출신 스웨덴 해외 입양인들과의 지역사회 간담회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세대와 국경을 넘는 교류와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입양된 여성 10여 명이 참여해,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스웨덴 입양의 역사 현황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고향을 방문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은 이들과 대화 세션을 통해 서로의 시선과 경험을 공유하며 문화적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시각을 넓혔다.

간담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채석진 교수와 스페인 읍살

Voices from Sweden : Adoptees in Dialogue with Gwangju

주최 | 조선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스웨덴 입양인 광주 모임 주관 | 조선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사)광주영상문화재단

☑ 행사 소개

본 간담회는 광주·전남 출신 스웨덴 입양인들과 지역 사회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국-스웨덴 입양의 역사, 입양인들의 이야기, 지역 전문가 및 지역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하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14:00~14:10 | 개회사   채석진 (조선대), 마리아 하이머 (스웨덴 읍살라 대학)                                                                                                                                                                                                    |
| 14:10~14:30 | 스웨덴 - 한국 / 광주 해외 입양 역사 채석진 (조선대), 마리아 하이머 (스웨덴 읍살라 대학)                                                                                                                                                                                   |
| 14:30~15:00 | 스웨덴 입양인 이야기<br>5명의 입양인 이야기 동영상 상영<br>1. Charlotta von Seth (전자영) - 공허함과 함께 살기: 입양 이후<br>2. Malin Bergström (한옥희) - 내 안의 불꽃을<br>3. Elisabeth Nylund (김미선) - 이상한 새<br>4. Carina Dahlin (서정숙) - 거대한 미스터리<br>5. Minseon Lee (이형자) - 빼앗긴 모든 것 |
| 15:00~15:30 | 패널 토론   소준철 (전남대)                                                                                                                                                                                                                        |
| 15:30~16:00 | 청중과의 대화   참석자 전원과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                                                                                                                                                                                                    |

☑ 사회 및 동시통역: 채석진 (조선대)  
문의: sjchae@chosun.ac.kr

2025.10.15 (수) 14:00-16:00

광주영상복합문화관 3층 클래스 F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Voices from Sweden : Adoptees in Dialogue with Gwangju

▲스웨덴 해외입양인 간담회 포스터

라대 마리아 하이머 교수가 공동 기획해 이뤄졌다. 채석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의 해외 입양을 연구해 왔으며, 마리아 하이머 교수는 스웨덴 한국 입양인연대(AKF)의 이사

로, AKF의 창립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 국제적인 의미가 더해졌다.

채석진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보낸 해외 입양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되짚어보고, 지역사회와 해외 입양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ls1022@naver.com

## 우리 대학 박물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성료



우리 대학 박물관이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다. 우리 대학 박물관은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 마음을 열다」-지역과 함께하는 대학박물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됐다. 상반기에는 ▲'박물관, 과거를 열다'(4~6월) ▲'박물관, 빛나는 기억정원'(5월) ▲'우리동네 대학박물관'(6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무슨일을 하나요?'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총 5회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유물 접합 및 계측 등 박물관 관련 직업군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에는 총 55회차 프로그램에 걸쳐 1,031명이 참여했다. 단체 참여 기관은 12곳으로, ▲동산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를 비롯해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김성환 박물관장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내 박물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박물관은 하반기 RISE사업을 통해 ▲박물관 진로교육 ▲인문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박물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chosun\_museum)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가는 길



2025년 6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에서 6승 4무, 승점 22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출정식을 가졌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 이면에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2024년 2월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FIFA 랭킹 87위 요르단에 0-2로 완패하는 충격을 또다시 겪었다. K리그1의 2024시즌 평균 관중은 1만 789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프로야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1년여 앞둔 지금, 한국 축구는 과연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 한국축구의 현실

2025년은 K리그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다. K리그1과 K리그2를 합친 유료 관중은 3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전년도보다 48경기 단축된 416경기 만에 이룬 쾌거였다. K리그 전체 입장 수입은 425억 5,660만 원으로 2013시즌 공식 집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2023시즌보다 23.5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K리그1의 경기당 평균 관중 1만 789명은 여전히 4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일본 J리그에 크게 뒤처진다. 구단별 입장 수입도 서울이 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6억 원, 전북 39억 원이 뒤를 이었지만, 하위권 구단들은 10억 원대에 그쳤다.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계권료는 더욱 암담한데, K리그 전체 중계권 수입은 연간 170억 원 수준으로 프로야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말 저녁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수십만 명이 시청하지만, 그에 비해 K리그는 외면받고 있다.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하락세다. 한때 아시아 클럽 대항전을 석권하던 K리그 구단들은 최근 4년간 단 한 팀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2020년 전북 현대의 준우승 이후 한국 구단의 AFC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추락했다. 리그 운영의 문제도 지나칠 수 없는데, 스플릿 시스템과 승강 플레이오프 방식은 매년 조금씩 바뀌며 팬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장기적인 팬덤 형성을 가로막는다. 상위 3~4개 팀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의 경쟁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부족한 투자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K리그 구단은 모기업의 지원금으로 겨우 운영되는 실정이다. 자생력을 갖춘 구단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관중이 적어 스폰서가 떠나고, 수익이 줄어드니 선수 육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유소년 시스템, 엘리트 체육의 한계

한국 축구는 보통 청소년 단계에서 시작된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 인구는 지속적인



로 감소하고 있다. 학생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병행이 어렵지만, 많은 학교 축구팀에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훈련에 몰두한다. 운동을 그만두면 학업 공백이 생겨 다시 진로를 찾기 어렵다. 부모들이 자녀를 축구선수로 키우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엘리트 체육 중심의 구조도 문제다.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축구를 계속하기 어렵다. 사실상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연결고리가 없다. 유럽과 같이 클럽 중심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해 재능 있는 선수들도 학교팀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지도자의 질도 문제가 되는데, 많은 학교 축구팀 감독은 여전히 구시대적 훈련 방식을 고수한다. 체벌과 폭언이 만연하며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수들의 개성과 창의성은 무시된 채 획일적인 훈련만 반복된다.

한국 U-20 대표팀은 2019년 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 이후 세대들은 그 기록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서 4강에 올랐지만, 전반적인 청소년 대표팀의 경쟁력은 일본에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

## 손흥민 없는 축구 대표팀

2025년 6월, 한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6승 4무 무패로 마치며 본선으로 향하는 티켓을 확보했다.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에서 4-0 완승을 하며 조 1위를 확정 지었다.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운 행보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137경기 53골로 대표팀 역대 통산 출전 1위, 통산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11월 쿠웨이트전에서



(출처: 대한축구협회(KFA))

국가대표 50번째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 선수의 58골 기록에 8골 차로 근접했다. 문제는 한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것이 의존된다는 점이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최근 경기들에서 한국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민재 선수의 백패스 실책으로 실점한 후 손흥민 선수의 동점 골로 겨우 비겼다. 한 선수의 유무가 팀 전체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기형적 구조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1992년생인 그는 2025년 현재 33세로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 2026년 월드컵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그를 대체할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2024년 2월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은 요르단에 0-2로 완패했다. 한국은 슈팅 수에서 7대 17로 밀렸고,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FIFA 랭킹 23위 한국이 87위 요르단에 참패한 충격은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시아에서조차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 구조적 문제, 축구협회의 거버넌스

앞서 나열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근본적 문제는 거버넌스에 있다. 대한

축구협회는 오랫동안 비리와 무능의 온상이었다. 역대 회장들은 축구 발전보다는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우선시했다.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는 축구계 전반에 불신을 만들었다.

예산 집행도 불투명하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축구협회를 거쳐 가지만, 정작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가대표팀 운영비와 각종 대회 개최비 명목으로 천문학적 돈이 지출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성보다는 인맥과 로비가 작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감독 중 상당수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받아 갔다. 이는 고스란히 축구협회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프로와 아마추어, K리그와 축구협회 사이의 갈등도 심각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조율과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각자도생의 논리만 팽배한다. 한국 축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부재한 결과다.

## 2026 월드컵, 새로운 시작인가 마지막 기회인가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고, 아시아축구연맹에 할당된 본선 진출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난다. 한국이 11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진출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는 이제 23년 전 이야기다. 그 영광 이후 한국 축구는 정체되어 있다. K리그는 여전히 관중을 채우지 못하고, 유소년 시스템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대표팀은 한 명의 스타 선수에 의존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투자는 부족하며,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절망만 할 수는 없다. 일본은 1990년대 한국보다 뒤쳐진 축구 후진국이었지만, 체계적인 투자와 장기 플랜으로 지금은 아시아 최강이 됐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위기를 겪었지만, 유소년 시스템 개혁으로 2014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변화는 가능하다.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K리그의 체질 개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전면 재편, 축구협회의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다. 당장의 성적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02년의 신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20년간의 체계적인 투자와 준비가 있었다. 지금 다시 그런 투자와 준비를 시작한다면, 2040년 즈음에는 또 다른 신화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수민 기자

josumin0408@naver.com

# 도시와 환경의 조화, 청계천 복원 20주년



▲청계천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조성 당시 뉴욕 노른자 땅에 경제적 가치가 적은 공원을 짓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결국 뉴욕에 없어서는 안 될 상징이 됐다. 만약 센트럴파크가 생기지 않았다면 뉴욕 시민들의 쉼터가 사라짐은 물론, 수많은 건물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섬 현상'이 발생해 여름철 폭염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에 자연 공간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됐다.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에도 없어서는 안 될 상징이 된 공간이 있다. 바로 올해 복원 20주년을 맞은 청계천이다.

##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았다

과거 청계천은 지금처럼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정비해야 할 지역으로 취급받던 청계천은 공장과 빈민가가 뒤섞인 곳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정비되지 못한 청계천은 해방 이후 6.25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이 몰려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고심 끝에 하천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복개 사업을 진행했고, 복개가 된 청계천 위에는 산업화 성장 시대에 높아진 교통 수요를 맞추기 위해 '청계 고가도로'가 만들어졌다.

하천은 덮개로 덮어버렸을지라도 청계천 주변의 문제는 여전히 덮여지지 않았다. 청계 고가도로 밑의 도로에서는 복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불법 노점상이 판치고 있었고 빈민가는 다시 생겨났다. 또한, 고가도로 구조물로 인해 배출 가스와 매연은 분산되지 못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복개가 된 청계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탄가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임시방편으로 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배출구를 뚫어 놓았지만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었고 시간이 흘러 노후화가 돼 붕괴 위험까지 생긴 고가도로는 대형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시한



▲청계천에 살고 있는 왜가리

폭탄이었다.

## 다시 자연의 품으로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한강의 물을 끌어와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미 물이 멈춰버린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복원 기간동안 교통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 쓸 돈으로 시민의 복지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한 끝에 2005년, 청계천에 물이 흘러 이전의 오염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변신했다. 자연에게 빌린 공간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준 것이다. 동시에 청계천은 시민의 휴식처가 됐다.

## 환경의 중심지

청계천에서 청계 광장으로 나갈 때 거대한 새가 보이는데 이 새는 왜가리다.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왜가리를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본 것은 청계천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청계천에 돌아온 자연은 왜가리뿐만이 아니다. 악취가 심하던 청계천의 물은 환경 기준 2급수 수준으로 정화되어 복원 직후 4종



▲청계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

에 불과하던 어류는 현재 ▲피라미 ▲돌고기 ▲잉어 ▲붕어 ▲버들치 ▲돌고기 ▲줄물개 ▲가물치 ▲향어 등 25종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 민물고기 '쉬리'가 발견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청계천이 도심에서 하는 역할도 적지 않다. 기존의 청계 고가도로로 인해 순환되지 않았던 공기가 순환하여 공기가 맑아졌으며 열섬 현상을 해결해 주변 기온이 평균 3~5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습도가 상승해 미세먼지 농도도 완화됐다. 또한, 상습 침수 구간이던 종로구가 청계천 복원 이후 청계천으로 물이 방류돼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자연을 일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활용한 효과가 드러난 것이다.

## 문화와 관광 중심지

청계천은 문화와 휴식의 중심지가 됐다. 물가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이를 구경하는 시민들까지 문화와 낭만의 공간이 됐다. 다양한 분수대와 돌다리, 물결과 LED를 활용한 전시는 바쁜 현대 사회에 숨 돌릴 틈을 주기에 충분한 공간이 됐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청계천 문화제, 서울빛초롱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 중이다. 특히 올해는 9월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청계천 야외 도서관이 열려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을 백색 소음 삼아 무료로 독서를 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

축제가 없는 평상시에도 산책하면서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임은 물론 조선 시대 다리였던 ▲광통교 ▲모전교 ▲수표교 등이 복원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청계천 주변에 ▲광화문 ▲청계 광장 ▲을지로 ▲광장시장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관광지가 있어 서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청계천과 광주천

광주천은 1990년 초반까지 물의 흐름이 거의 정지돼 있고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로 악취가 가득했다. 부족한 유량을 하수 처리한 물과 영산강의 물로 보충하고 광주천 주변 정리 사업을 추진한 끝에 생태계가 복원됐다. 복원된 광주천은 청계천처럼 광주 시민들에게 도시 속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광주천은 아직 복개가 복원되지 못한 장소가 남아있다. 복개된 상태로 남아있는 장소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맞춰 강기정 시장은 장마철 상습 침수와 광주천의 생태를 복원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 자연과의 공존

도시와 환경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1952년 런던은 도시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석탄 연료의 연기 등 가스와 안개가 결합해 1미터 앞밖에 보지 못하는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다. 특히 공업 지대인 런던 동부는 가시거리가 30c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5일간 약 4,000명이 사망했다.

반대로 자연이 빈약한 국가로 평가받던 싱가포르는 1960년대 이후 가든 시티 정책을 추진해 도시와 자연을 잘 조화시켰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는 국가로 성장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 오염된 공간을 잘 정비한 끝에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한다.

# 요금 오른 광주 택시, 기사 처우·승객 부담 완화책은 ‘숙제’

광주광역시 택시요금이 2년 만에 인상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달 13일 택시 운임·요금 변경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2일 0시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은 현행 2km당 4,300원에서 1.7km당 4,800원으로 변경됐다. 기본 요금이 500원 인상된 데다 기본 거리는 0.3km 짧아졌다.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변경됐으며,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기준을 유지했다.

할증 요금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방식에서 세분화돼,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다시 20%로 적용됐다. 시계 외 할증은 일반 구간은 35%를 유지하지만 ▲담양 ▲장성 ▲함평 ▲나주 등 인접 시·군 운행 시에는



▲도로 위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출처: 아이클릭아트)

40%로 상향됐다. 혁신도시 도착 요금의 30% 가산은 그대로 유지되며, 심야와 시계 외 구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됐다.

모범·대형택시 요금도 조정됐다. 기본요금은 2km당 5,100원에서 1.7km당 5,400원으로 변경됐

고, 거리 요금은 156m당 200원에서 149m당 20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심야할증과 사업 구역 외 운행 시 20% 할증이 신설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올해 7월 22일 열린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업계와 잠정 합

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됐다. 당시 광주광역시가 실시한 택시 요금 적정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택시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 도시의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은 ▲서울 4,800원(1.6km) ▲부산 4,800원(2km) ▲대전 4,300원(1.8km) 등인데 비해 광주는 4,300원(2km)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거리·시간 등을 반영한 평균 이동 거리(5km) 기준 요금을 비교했을 때도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약 1,000원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를 고려할 때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법인 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도 함께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

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요금 인상 초기에는 승객 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 수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법인택시업체도 인력 부족과 연료비 상승 등의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단순한 요금 인상만으로는 경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해와 부담이 공존했다. 물가 상승과 다른 지역 수준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기본 요금이 5,000원에 육박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사 처우 개선과 업계 지원,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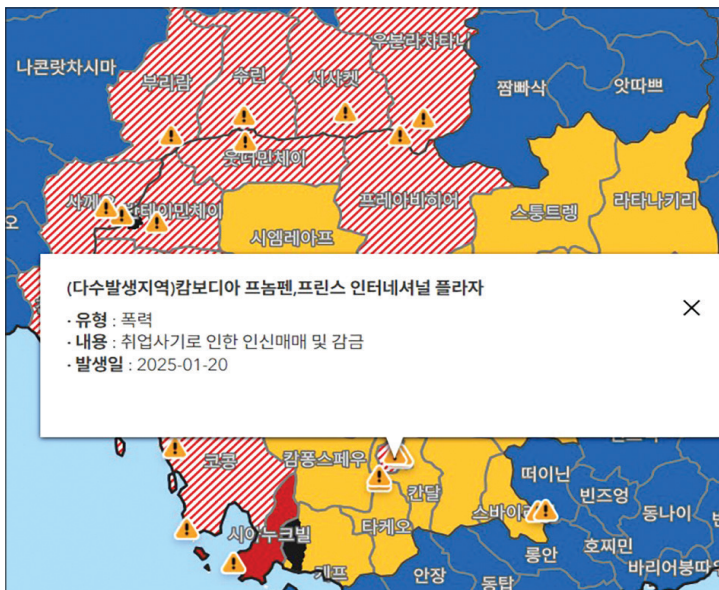
jkjkm0106@naver.com

## ‘고수익 일자리’라는 악마의 속삭임

최근 한국 사회가 해외 범죄 피해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의 한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대형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심각한 폭행과 고문 흔적이 있는 시신은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캄보디아의 일명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로, 수사에서 수백 명이 합숙하며 조직적으로 온라인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대규모 사기 콜센터가 존재하는 곳이다.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캄보디아에 비슷한 범죄 단지가 50개 이상 존재하며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이곳에 감금됐다가 조직 내부에서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한 남성은 “조직원들은 돈 때문이라면 사람도 쉽게 죽인다”고 밝히며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경험을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피해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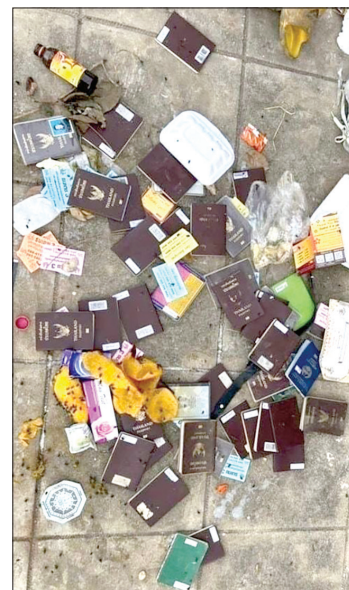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출처: 외교부)

212명으로, 2011년(11명)에 비해 1,827%나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경찰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사관 측은 피해자들에게 현지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의 납치 경로는 ▲취업 사기 ▲여행 중 납치 ▲인근 국가에서의 납치 등으로, 그 중 ‘취업 사기’의 비율이 높다. 고수익의 해

외 취업은 특히 20대 청년들의 눈을 끌며 피해를 가중시켰다.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일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납치해 강제노동, 감금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마약 등의 범죄에 가담하게 만든다. 급증한 범죄 피해로 인해 구직자 보호 대책이 시급해졌다.

지난 9월 24일, 취업 정보 업체인 ‘잡코리아’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채용 공고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캄보디아의 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다수의 외국인 여권 (출처: 아시아 경제)

고 밝혔다. ▲급여 및 근무조건을 과장한 공고 필터링 강화 ▲해외 채용 공고 등록 시 안내 문구 보강 ▲캄보디아 지역 공고의 경우 사전 검수 및 승인 절차 의무화 ▲고수익, 취업 알선 등 문제 소지가 있는 키워드 걸림 ▲AI 기반 검증 체계 고도화 등의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는 채용 공고의 등록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다.

납치, 감금에 대해 지속적인 신

고가 증가하자 지난달 15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부로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범죄에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조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섰다. 실제로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된 후 공항 게이트에 인력을 배치해, 캄보디아로 향하는 사람을 검문해 출국을 막기도 했다. 우리 대학도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캄보디아 납치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국가의 대책과 함께 개인의 대책도 필요하다. 고수익 채용 공고의 유혹에 주의가 필요한데, 취업과 관련해 공식 공고가 맞는지, 안전성이 보장됐는지 검열해야 한다. 또한 출국 시 위험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 사회가 안정되고 자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1022@naver.com

## 교수칼럼

## 복지국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communiti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 10여년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시범사업들을 꾸준히 해왔다.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사업들을 함께 해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integrated care)을 아동, 청년, 장년, 장애인, 노인 등이 통합적 돌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iy care)은 서구 복지국

가들이 해오던 복지정책이다. 병원, 시설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Aging In Place)을 정책적으로 실험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선현국의 커뮤니티케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다양하게, 따로 또같이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통합돌봄에서 전국적으로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 학교가 있는 광주광역시도 시청과 5개 구청 모두 함께 다양한 통합돌봄사업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다. 우



문용필 교수  
(행정복지학부)

리가 살아가는 광주광역시에서 복지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는 존재이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 안에 있고, 살아가고 있다.

거대한 정책흐름이 지나면 그 역동을 깨닫게 되지만, 그 흐름안에 있을 때에는 모를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대 청년층과 관련된다. 20대의 은둔 문제, 사회적 고립, 자살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도 관련된다. 공공 및 민간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민간 네트워크가 이 정책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20대라면 앞으로 그들의 새로운 일자리 영역으로 돌봄(care)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회권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다. 누구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그들이 새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이다. 세상을 선도할 우리 조대 학생들이면, 복지국가와 지역사회에 한번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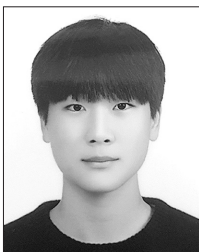
## 서석대

## 선부른 판단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빠른 정보의 전달은 여론을 쉽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쉬운 정보 전달은 다양한 경험을 어렵게 한다.

과거에는 주변 사람에게 질문해서 얻어내는 결과, 책, 신문, TV 등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 않아 직접 체험해보고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다. 정보가 제한적이던 만큼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거나 직접 경험해보고 얻은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접근이 쉬워진 요즘 시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나에게도 갈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다. 블로그의 후기가 좋지 않아 가지 않는 식당, SNS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포기한 여행지, 별점이 좋지 않아 보지 않은 영화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대리 경험을 토대로 나에게도 갈



정재우 기자  
ekdmdnn@naver.com

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아닌 타인의 경험일 뿐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의 경험을 타인에게 위탁해 내가 경험해 본 것처럼 결론짓곤 한다.

이에 맞춰 기업은 블로그 체험단, 인플루언서의 광고, PPL 등 좋은 후기를 만들어 내 상품을 파는 마케팅을 한다. 하지만 타인의 경험을 보

고 아무 생각 없이 사본 물건은 오히려 실망을 불러오기도 한다. 타인의 경험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경험이나 후기에 의존해 선택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직접 해본 체험과 경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곤 한다. 편리한 정보가 선부른 판단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정보를 아예 믿지 않고 무모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의 경험이 나에게도 해당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 청년의 담(談)

## 건강한 비교, 자존감 지키기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지에서의 느긋한 여유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불 속에 있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비교도 함께 시작된다.

타인의 성공을 보며 나의 노력을 의심하고, 화려한 삶을 보며 나의 하루를 부정한다. SNS의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할 대상을 마주한다. 특히 또래의 성취를 보며 나의 속도와 비교하게 된다. 입시, 취업, 재테크, 자기관리 등 불안정한 요소와 미래에 대한 요소에서 조급함과 불안이 찾아온다. 부러움과 질투의 공존으로 인해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낀다.

‘비교는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며 경쟁사회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비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

우리는 비교가 일상이 된 삶 속에서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타인과의 비교는 그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행동’이라는 말이 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타인의 빛나는 순간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대상이 아닌 대상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잃기 충분하다. 또한 비교를 ‘결과’ 위주로 소비한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작점과 과정을 모른 채 화려하게 비친 결과만을 본다. 결과만 바라보면 ‘나는 아직 멀었다’는 조급함만 남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



여정인 수습기자  
duwjddls1022@naver.com

찰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 임상 심리학 저널(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에서 진행한 ‘SNS 사용 시간과 우울증 증상의 상관관계’ 연구는 SNS의 시간을 줄인 집단(실험군)이 줄이지 않은 집단(대조군)보다 우울 증상이 감소했다고 한다. 각 집단에서 우울증 증상에 따라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실험군은 우울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대조군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SNS를 활용하게 되면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삶이 나의 삶보다 낫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SNS는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를 불러오는 환경인 만큼, 노출을 줄이려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SNS 사용을 줄이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로 나의 과정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들 뿐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보다 우울감만 느껴진다면 비교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항상 위만 바라본다면 좌절감이 오기 쉽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비로소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에 따라 인생을 살고 있다.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이 돼 나의 삶을 좌우하면 안 된다. 동기부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되, 자존감을 지키며 성장해야 한다.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는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다.

제보 및 문의  
chnews21@daum.net  
☎ 230-6162

## 사설

## 지식기반 산업시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기술과 인구, 노동시장이 동시에 재편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집약형 제조산업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생산비 절감과 시장 접근성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고, 베트남에는 이미 9천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제조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은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국내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취업난과 숙련 노동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 신호다. 과거의 생산 중심 산업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지식 중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계가 아니라 지식이 부가가치를 만들고,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과 로봇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우리 사회의 지식과 기술의 미스매치를 상징한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숙련 기술과 설계·

운영 역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한, 국내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은 저숙련 외국인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는 장기적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이제 대학은 지역과 국가 산업의 핵심 지식 인프라로서, 산업 생태계의 기술격차와 인력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국내 현장에서 축적되는 지식과 기술의 밀도, 즉 대학이 만들어내는 인적 자원의 수준이다. 또한 잘사는 나라에서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접하면서 자라난 지금의 우리 학생들은 예전의 국내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들은 그 역할의 최전선에 서 있다. 지방 산업의 구조적 약화는 곧 대학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역 대학이 기술 인재를 길러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면, 그것은 곧 지역 경제를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우리 대학은 광주·전남 지역이 가진 자동차, 에너지, 소재, 문화산업 등 다양한 산업 기반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기업의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대학의 강의실이 곧 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지역혁신의 출발점이다.

대학의 교육철학 또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의 교육은 여전히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사람보다, 문제를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학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 기술 이해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학이 산업과 사회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외국인 노동력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산업이 고도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기술의 진화 속도가 인재 양성 속도를 앞질렀다는 뜻이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값싼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구조에서 벗

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지식의 생산자이자, 산업 변화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이 민립대학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80년 전, 지역과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오늘의 대학은 그 정신을 다시 실천해야 한다. 지식이 산업을 바꾸고, 대학이 사회를 움직이는 시대, 우리 대학은 교육과 연구,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심에 서야 한다. 대학이 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산업이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의 동력을 되찾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공장에서가 아니라 대학의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시작된다. 지식이 부가가치를 만들고, 인재가 산업을 움직이는 시대, 대학이 그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 대학이 걸어온 길은, 이제 지식의 공공성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길로 이어져야 한다.

## 데스크에서

## “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

우리는 왜 노동하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곧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곧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다.

“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던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 전날 남긴 말이다. 지난 7월,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을 근무하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명백한 과로사가 분명함에도 사측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과문에는 직원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늘 회사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던’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끼니를 거른 것은 직원의 ‘자의’라고 해명했다. 그렇게 소중한 직원이 왜 죽어야 했을까. 왜 스스로 식사를 거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었을까. 청년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하는 기업에서 정작 20대 직원이 죽었다.



박 지 인 편집국장  
parkjiin313@naver.com

사측의 과로사 관련 ‘해명’에는 고인의 근무시간을 입증할 지문인 식기기의 오류로 인해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기사가 나와서야 과로사였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손님이 근무 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하는 등 남은 직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사 영업비밀 서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이직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위반

할 시 무려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과 함께, 엄연한 기업의 갑질이다.

청년 노동자의 열정과 헌신은 존중받지 못하고 구조적 문제가 결국 죽음으로 드러났다. 언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판국이다. 더이상 ‘이 업계는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어떤 보도에서는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었다며, 또 다른 보도는 ‘일하는 청년’이 과로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감사와 앞으로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우들도 노동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당연히 여길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더 이상 타인의 비극이 아닌 언제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길 바란다.

조대신문

# 조대신문과 함께 나아갈 {기자}를 찾습니다!



조대신문과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사항 #chnews21(인스타그램) #chnews21@daum

|      |                                                         |
|------|---------------------------------------------------------|
| 모집기간 | 2025.11.3(월) ~ 2025.11.9(일)                             |
| 모집대상 | 2026학년도 기준, 1년 이상 활동 가능한<br>우리 대학 1~3학년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제외) |
| 모집분야 | 분야: 대학, 사회, 문화                                          |
| 활동   | 활동: 매달 정기적인 신문 발행(방학기간 제외)                              |
| 혜택   | 매달 취재 장학금 및 원고료 지급                                      |
| 선발과정 | 선발과정: 신청서 서류 평가 -> 면접평가<br>(날짜 개별 안내) 후 합격 통보 및 활동안내    |

신청방법: 조대신문 홈페이지

(<https://www3.chosun.ac.kr/chnews/index.do>) 공지사항

해당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chnews21@daum.net으로 제출

제37회 조대문화상 공모전

# 조대문화상 공모전

2025. 10. 13. ~ 11. 16

## 공모 부문 및 분량

시 - 1인당 3~5편 이상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논설/평론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필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제출방법

학생복지팀 또는 조대신문 메일  
(chnews21@daum.net)통해 제출  
제출 서류 목록: ① 공모신청서 1부 (PDF파일)  
② 공모작 1부 (한글파일)  
③ 재학증명서 1부 (PDF파일)

## 공모대상

조선대학교 재학생

## 상금

부문 관련 없이 당선작은 25만 원, 가작은 5만 원  
(총 4개 부문)(시, 단편소설, 논평, 수필)

## 문의처

조선대학교 조대신문사 (010-2589-9484)  
조대신문 인스타(chnews21)

## 안내사항

1.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음
2. 표절, 도용 및 과거 공모전 출품 작품 수상 제외,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표절, 도용 및 타 공모전 출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3. 출품작의 표절, 도용, 초상권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5. 필요시 수상 작품은 조대신문에 게재함